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 1. 목장 모임의 방향

더온누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더 예수님처럼'입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양육의 시간도 함께 합니다. 이는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에 초점을 두어야겠지요.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도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함께 모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2. 무엇을 나누나요?

매주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나눔지는 매주 주일에 준비되며, 각 목자원들의 진솔한 나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끝나는 이론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 3. 어떻게 진행되나요? (4W의 원리)

마음 열기 Welcome	경배 찬양 Worship	말씀&기도 Word	나눔과 실천 Work
------------------	------------------	---------------	----------------

[마음 열기]를 위한 간략한 '아이스 브레이크'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드리고, [경배 찬양]은 그 주일의 적용 찬양입니다.

[말씀&기도]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나눔과 실천]은 질문/나눔 등을 통해 함께하시면 됩니다.

## 4. 언제, 어디에서 모이나요?

일주일 중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하루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더온누리교회는 금요일 저녁을 목장 모임을 위한 시간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각 목장 별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기초적인 신뢰를 구축하게 되지요. 각 목장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한 후에는, 가능한 이에 준하여 모임을 갖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5. 모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하는 교안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도록 모임 시간을 정해야 하며, 함께하는 목장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치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서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나눔을 함께할 때에는, 각 사람이 같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여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6. 목장 일정은?

각 목장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장의 형태는 교회 구성원들의 상황과 여러 부분들을 반영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매년 3월/9월에 개강하고, 7~8월/1~2월에는 방학을 합니다. 각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지치거나 탈진하면, 효과적인 나눔이 어렵습니다. 방학 기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재충전을 함께하고, 새롭게 힘을 모아 목장 모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7.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더온누리교회 목장은 [지역장-마을장-목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목자에게 연락 주시면 의견 수렴하여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담당 교역자 및 지역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함께 지역 담당/고영숙 전도사 | 시니어(Senior)-푸른마을 지역장 /오성근 장로  
 더믿음 지역 담당/ 이학엽 강도사\_고영숙전도사 | 제1마을-제3마을 지역장 / 최광열 장로  
 더소망 지역 담당/ 김승호 목사\_고영숙전도사 | 제4마을-제6마을 지역장 / 이혁주 장로  
 더사랑 지역 담당/ 윤찬영 목사\_이여진전도사 | 제7마을-제9마을 지역장 / 홍지호 장로  
 더은혜 지역 담당/ 김성연 목사\_이여진전도사 | 제10마을-제12마을 지역장 / 김종설 장로  
 더기대 지역 담당/ 정갑주 목사\_이여진전도사 | 제13마을-제15마을 지역장 / 강경범 장로

##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열왕기상 1장 30절)

이제 우리 공동체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원래 한 권의 책이지요. 다윗 왕 통치 말엽인 주전 10세기 초~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통일/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는 다음의 세 질문을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왜 분열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대답합니다. 특히, 신명기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두 국가가 멸망한 이유를 밝힘으로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를 읽을 때에 가장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 1\_위기 -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칩니다. 강력한 왕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침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하지요.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총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음 대의 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앞선 암논, 압살롬은 죽었고 길르앗은 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 지지와 정통성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눔]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나눔] 내 삶에 마주한 위기 / 고난은 무엇이 있나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 2\_교만 - '스스로 나 자신을 높임'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1:5) 지지와 정당성이 있으니, 왕의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정식 부인 학깃에게 태어났고(삼하 3:4) 외적으로도 준수했고 (1:6) 공동체 전체의 지지를 얻었기에(1:9) 왕위 등극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아도니아는 **실질적 장자**에 해당하였지요. 아직 왕위를 계승하는 기준이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였기에, 아도니아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위의 장자 세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끊임 없이 유혹합니다. 성공하려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오늘 이 시대의 방법을 그대로 쫓아야만 한다고 속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합리'와 '다 그렇게 해!'라는 포장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눔] 나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나요? 그 상황을 통해, 더욱 깊이 배운 점이 있다면?

[나눔] 오늘 이 세상 속에, '합리'와 '자기 중심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목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 3\_약속 -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하고 즉위식을 진행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인간의 합리적 기준으로 본다면 왕위 계승에 있어 도무지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 솔로몬은 '여디디야'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표현됩니다.(삼하 12:24-25)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이지요.

흔탁한 시대일수록, 극심한 위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의 찬양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 그것만이 이 폭풍과도 같은 위기를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적용] 다시 한 번 우리가 함께 붙잡을 약속은 무엇인가요?

[나눔] 주일 말씀을 들으며, 위기를 바라보는 변화된 관점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